

[종합]

농림부, 해남 송천지구 농어업회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J프로젝트 개발 부지 축소 우려

전남도, 삼호·구성지구만 우선 추진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서남해안권 광역도시 개발계획(J프로젝트) 6개 지구 가운데 1개 지구를 정부가 농어업회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함에 따라 J프로젝트의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영산강 간척지(713ha)와 새만금 간척지 일부(700ha) 등 2곳을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내년 3월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농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은 물론 연구시설까지

갖춘 일종의 '기업농'을 말한다. 현대사농업법인 등 기존 기업농과 달리 낙농 화훼 등 수출 주도형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한다는 게 농식품부 방침이다.

이날 농식품부가 농어업회사 시범사업 대상지로 발표한 영산강 간척지는 J프로젝트 6개(삼호·구성·초송·부동·삼포·송천) 개발지구 가운데 해남군 산이면 일원의 송천지구 210만평이다. 송천지구 470만평 중 절반 가량의 개발면적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면적 축소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 조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J프로젝트 참여 호·구성·초송지구 개발계획이 18일 올해 마지막에 열린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데 따라 내년 1월 다시 상정기로 해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농림부의 간척지 양도양수 협의가 지연, 발목이 잡혀있는 초송지구를 제외한 정부 시범지구로 지정할 삼호·구성 등 2개 지구만을 우선적으로 중도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신 초송지구 개발계획은 현재 개발이 더딘 부동지구로 전환해 내년 상반기 중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농림부는 J프로젝트 참여 SPC(특수목적법인) 중 서남해안권업도시개발(주)과 서남해안래저(주), 씬카운티(주) 등 3개 법인이 신청한 '구성·삼호·초송지구 개발계획 승인 건'과 관련해 기업도시 시범구역 밖에 위치한 해남군 산이면 초송지구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 왔다.

전남도 관계자는 "삼호·구성지구만 우선 개발하지만 전체 J프로젝트 개발면적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초송지구는 구역조정 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산 송정리역에 임방울 선생 전시관... 광주시 송정리역에 '국창 임방울 선생 전시관'을 개관했다. 전시관은 임방울 선생의 생애를 담은 전시 공간, 전통예기를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공간, 임방울 선생에 관한 영상과 음향을 담은 공간 등으로 구성돼있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광양·목포

국제물류 항만

▼영암·해남

기업도시 육성

해안 초광역 성장거점 만든다

구상과 핵심사업 발굴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동서남해안 권별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및 집행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과 권역별 핵심사업 개발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전남·부산·경남 등 3개 시도의 35개 시군구가 포함된 남해안권의 개발을 선제로 추진, 타 해안권역의 개발을 선도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남해안권을 '동북아 해양관광·물류·경제중심'으로 건설하기 위해 국제무역·금융 거점, 남해안 크루즈 개발, 섬 등을 활용한 고품격 친환경 휴

양단지 조성, 낙동강 하구-남해-순천만을 연결하는 녹색생태관광벨트 구축, 부산산하·광양항·목포항 등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개발, 사천 항공산업 및 고품 항공우주산업 연계 발전, 조선산업을 활용한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해안권을 3개 권역으로 세분, 남동권은 강서첨단물류단지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종합물류거점을 구축하고 남중권은 여수엑스포 개최를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한편, 서남권은 영암·해남 기업도시 및 신발전지지역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북지리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동남아에서 9,290만불 수출 MOU

박광대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경제협력 및 시장개척단'이 동남아 3개 도시에서 9천29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시장개척단이 지난 11일부터 9일 동안 타이베이, 호치민, 자카르타에서 산업 환경 설명회와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이같은 실적을 올렸다.

시장개척단에는 광통신과 금형, 태양열 관련 기업 등 28개 업체가 참여했다.

광산업 업체인 오픈테크놀로지사 등 4개사는 1천460만달러, 광주금형산업진흥회는 1천700만불, 자전거 크랭크 제작업체인 금강바이크로라사는 3천만달러의 수출 MOU를 각각 체결했다.

최영민기자 penfoot@kwangju.co.kr

수도권 규제완화 앞당겨 시행

지역경제 고사 위기

기업 유치 등 차질 불가피

정부가 산업·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전면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해 광주·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집중 육성 중인 광산업과 풍신기기, 자동차 부품, 우주·항공 산업까지 포함돼 이 지역 선도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조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지역의 89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신·증설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경부는 당초 수도권 공장규제 개선방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앞당겨 예고 시행령 1개월 내에 시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수도권경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군사환경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에 들어서는 공장 관련규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항공기·우주선 부품, 광섬유 등 25개 첨단업종 공장을 수도권에 자유롭게 신·증설할 수 있게 돼 광주시·전남도의 기업 유치 전략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광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온 광주시와 전남도로서는 산업인프라와 입지 여건에서 수도권에 비해 크게 열악해 관련기업 유치에 불명예해지기 때문이다.

광 관련 기업의 경우 공장 신·증설을 억제해온 수도권 규제 법안 때문에 광주시 등지로 가지못해 이전해온 점을 감안하면 기업 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들의 역이전 가능성마저 대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역 경제를 고사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최영민기자 penfoot@kwangju.co.kr

"남해안권을 한반도의 세계화 기지로"

▶1면 '합동청사'...서 계속

의원연구모임 정책 토론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남해안권을 동북아의 물류·관광·미래산업의 중심지, 한반도의 세계화 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제시됐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국회 '남해안시대를 위한 의원연구모임'(공동대표 김성근·정의화·이주영) 주최로 19일 경남 하동군 하동문화관에서 열린 '남해안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남해안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계

기가 될 것"이라며 "균발전은 여수엑스포 성공을 위해 SOC 확충, 산업을 리스타, 관광레저거점, 자유무역거점 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경남발전연구원장도 '남해안 시대와 여수세계박람회 연계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여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남해안권을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해안시대를 위한 의원연구모임'은 남해안시대 발전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35인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로 전남·부산·경남을 아우르고 있다.

국립식물원연구소 호남지원 광주사무소(북구 임동) 건물 역시 광주지방보훈청과 같은 방식으로 처분될 전망이다.

한편 합동청사가 들어선 광주시 북구 옹동동 첨단산업단지 인근 부동산중개소에는 식당·숙박업소 등을 물색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K부동산 관계자는 "합동청사의 업무개시가 임박하면서 한동안 끊겼던 임대·매매시장 전화가 부쩍 늘었다"면서 "합동청사 준공 특수를 누리기 위해 이미 내놓은 아파트 물건매매를 철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ung-do. It features a stylized drawing of a person holding a camera and a speech bubble with the text '전통대로 또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Advertisement for '광고점수안내' (Light Point Guide) for the newspaper '광주일보'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Advertisement for '완도명사심리 땅' (Wando Myeongsa Shimi Land) for sale. It lists various land parcels with their siz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광주장애인재활전문병원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 공고' (Kwangju Disabled Rehabilitation Specialist Hospital Entrusted Operation According to the Entrusted Party Recruitment Notice). It provides details about the recruitment process and requirements.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Mountain Hiking Guide) for December 20th and 21st. It lists various hiking routes, distances, and difficulty levels.

Advertisement for '인터넷쇼핑몰 (주)백무산악' (Internet Shopping Mall (J) Baekmu Mountain). It promotes a nationwide lowest price event from Dec 18th to 28th, listing various products and prices.